

지석영과 주시경의 표기법

송 철 의 *

I. 서론

19세기와 20세기의 교체기에 한국의 개화파 인사들은 개화를 통한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 건설을 꿈꾸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예 속에서 벗어나 자주독립하여야 하고,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문명개화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하며, 신분제를 폐지하여 만민평등을 실현하여야 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이 필요했고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을 위해서는 다시 통일된 국어 · 국문이 필요했다.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의 도구는 언어와 문자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¹⁾ 그리하여 이 시기에 어문을 정리하고 통일시키기 위한 어문연구와 어문운동이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박은식은 「論國文之教」(190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의 문명은 교화에서 비롯되는데, 교화가 널리 미치게 하려면 전국의 인민을 빼짐없이 배우게 해야 하고 전국 인민이 모두 배움에 밝게 하려면 국문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편리한 것이 없다. 한문은 사람마다 다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문은 남녀 물론하고 모두 배울 수 있다.”(國之文明 由於教化 欲教化之蒸然日隆 則 必使全國人民 無一不學而後可也 欲使全國人民皆曉於學 則莫便於國文之教也 盖 漢文非人人可能 而國文則無論男女皆可學之也). 강명관(1985: 209)에서 재인용.

전개되었고 그 중심에 지석영과 주시경이 있었던 것이다.

지석영과 주시경은 21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어·국문에 관한 훌륭한 토론의 상대가 되기도 하고 국어와 국문을 함께 연구하기도 하였으며²⁾ 다 같이 한글 표기법을 정립통일하고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 이들은 통일된 표기법을 정립함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였으며, 한자 사용에 대한 입장도 달랐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이러한 차이를 노정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혀 보려고 한다. 이들 둘의 차이는 단순히 두 개인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한글 표기법에 대한, 그리고 한자에 대한 양대 진영의 차이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표기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도 검토해 볼 것이다. 지금까지 지석영과 주시경 각각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지석영과 주시경을 대비시켜 전면적으로 논의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신유식(1999) 정도가 있을 뿐이다. 또 표기법과 관련해서도 지석영의 표기법과 주시경의 표기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해 왔을 뿐, 그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지석영과 주시경의 표기법을 우선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두 표기법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혀 보고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지석영은 주시경에 대하여 “나는 주시경 씨 생전에 그와 함께 연구도 하였고 그의 두뇌가 치밀한 점에 대해서는 敬服하였다.”라고 회고한 바 있으며(지석영 1929), 주시경은 지석영에 대하여 “임인 정월 십수일에 지직 김선신 천도로 송촌 디교장을 찾아보고 이후불어 종종 국문으로 다소 의론이 만았고”(『대한국어문법』 31-32-7)라고 회고하기도 하였고, “壬寅 元望불어 池松村公을 訪從 乎여 · 가 । — 合 音됨을 陳說 乎더니”(『國語文典音學』 34)라고 회고하기도 하였다. 주시경이 지석영에게서 『훈민정음』(『문헌비고』의 ‘樂考’에 실린)과 『용비어천가』를 얻어 보았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II. 한글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

지석영과 주시경의 표기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이 시기에 왜 한글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가, 한글 사용을 주장한 사람들은 한글 사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나 이유를 내세웠는가, 그리고 한글 사용을 일반화 또는 공식화(公式化)하려 했을 때 제기된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가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개화기에 들어서 한글 사용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기 시작한 사람은 유길준이 아닌가 싶다. 그는 1885년 12월 28일 福澤諭吉에게 보낸 편지에서

- (1) 조선 사람들이 한문으로 된 책만을 읽다보니 완고해지고 애국심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직 작은 이익만을 도모한 지가 오래 되어 문제가 있으니 먼저 조선의 국문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법을 시행하여 가르치고 배우는데 편리하게 하고 애국심도 가르치게 해야 한다(且念朝鮮人自讀漢書以來 頑固成習 不知愛國心爲何等事 各自爲心 只謀小利者久矣 故務先行教育法 而用朝鮮國文 以便訓習使教以愛國) (『與福澤諭吉書』, 『유길준 전서V』, p. 278)

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한글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당시에 한글 사용의 필요성, 혹은 당위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내세웠다.

첫째, 한자는 글자수가 많아서 배우기 어려운데 한글은 간편하고 글자수가 적어서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이다.

이는 이미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에서부터 말한 바 있는 사실이다. 훈민정음, 즉 한글은 “간결하면서도 요령 있어서(簡而要) 슬기로운 사람은

3) 여기서의 ‘한글 사용’이란 ‘한글 사용의 一般化’, 또는 ‘한글 사용의 公式化’를 뜻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글이 창제된 이후 그것이 계속 사용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갑오경장(1894)까지는 한글의 사용이 일반화되거나 공식화되지는 못한 상태이었다.

하루 아침에 깨우칠 수 있고(知者不終朝而會) 우둔한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愚者可浹旬而學)”고 하였다 것이다. 그런데 개화기의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발언들을 하였다. 유길준은 한문과 한글을 비교하여 “漢文은 字數 衆多 흔 故로 學成하기 甚難且久 흔고 本國文은 字數가 些少 흔 故로 學得하기 甚便且易”⁴⁾하다고 하였다.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에서도 한글(국문)이 한문보다 나은 것은 배우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시경도 「국문론」에서 큰 성인께서⁵⁾ 만드신 글자는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쉬워서 어리석은 어린 아이라도 하루 동안만 공부하면 넉넉히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⁶⁾

이렇게 한편으로는 한글이 간편하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자는 글자수가 많고 복잡해서 배우기가 어렵다는 점과 한문을 사용하면 ‘言文一致’를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자, 한문의 폐해를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둘째, 남녀노소 상하귀천 없이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기 쉬운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耜선 언문은 본국 글ㅅ周恩더러 선비와 박성과 남녀가 널니 보고 알기 쉬오니
(헐버트, 『수민필지』)

(3) 모도 언문으로 쓰기는 남녀 상하귀천이 모도 보게 흡이요 (...)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토로만 쓰는 거슨 상하귀천이 다 보게 흡이라 (...) 박스을 한문 뒤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도 보고 알아 보기가 쉬흘 터 이라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 1896.4.7.)

(4) 이제 이삼십년식 전력흐여도 특별흔 직조 안이면 졸업흘 수 업는 한문으로는 원 나라 사람을 학식 있게 훌 수 업스니 우리나라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라 흐면 불가불 국문을 써야 될지라 (주시경, 「국문」, 『가정잡지』 1-1)

4) 유길준(1883), 「世界大勢論」, 『유길준전서III』, 15-6.

5) 여기서 ‘큰 성인’은 세종대왕을 가리킨다.

6) “어리석은 아희라도 하로 동안문 빙호면 다 알게 만드샤”(주시경, 「국문론」)

“큰 성인의서 문드신 글주는 빙호기가 쉽고 쓰기도 쉬으니”(주시경, 「국문론」, 밑줄은 필자. 이하 同)

주시경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본래 의도가 이러한 것이었다고 이해하였다. 그는 「국문론」에서 세종대왕께서 배우기와 쓰기에 쉬운 한글을 창제하시어 전국 인민들이 공연히 문자를 배우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덜어 주시고 ‘남녀노소 상하 빈부귀천 없이’ 다 일체로 문자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였다. 이는 『훈민정음』 「御製序文」의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易習 便於日用耳”라는 구절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다. 주시경이 『문헌비고』의 ‘樂考’에 실린 「훈민정음」을 보게 되는 것은 「국문론」을 쓴 후 8년 뒤(1905)의 일인데, 『훈민정음』 「어제서문」의 내용이나 「정인지 서문」의 내용은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셋째, 한글은 조선 國文이니까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글을 숭상하고 자기 나라 글을 통달한 후에야 타국 글을 배우는데, 조선 사람들은 남의 나라 글만 숭상하고 본국 글에 대해서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니 절통한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 사람은 조선 국문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 (5) 조선 언문은 본국 글스즈뿐더러 선비와 빅성과 남녀가 널니 보고 알기 쉬오니
(헐버트, 『수민필지』 서문)
- (6) 이 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빅스을 한문 디신 국문으로 써야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 1896.4.7.)
- (7) 대며 각국 사름은 본국 글을 숭상하야 학교를 설립하고 학습하야 국정과 만수를 못할 일이 업시하야 국부민강하것모는 조선 사름은 늄의 나라 글문 숭상하고 본국 글은 아죠 리치를 알지 못하니 절통한지라 (리봉운, 『국문정리』 서문)
- (8) 나라마다 방언문 다를뿐 아니라 각기 국문이 잇는고로 어느 나라 사름이던지 몬저 본국 말을 다 안 연후에 타국 말을 빙하고 본국 글을 다 통달한 연후에 타국 글을 빙호는 것은 사름의 상정이요 스리에 당연한 바로다. (「타국 글 아니라」, 『독립신문』, 1899.5.20.)

넷째, 자주독립의 이치로 보더라도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과

글은 한 나라의 자주국이 되는 징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독립국임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자인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9) 또 조류 독립의 리치로 말호야도 놈의 나라 글문 위쥬홀 거시 아니오 … 문명의 데일 요긴한 거슨 국문이니 (리봉운, 『국문정리』 서문)
- (10) 혼 나라에 특별한 말과 글이 있는 거슨 곳 그 나라가 이 세상에 편연으로 혼목 조류국 되는 표요 (주시경, 『국어와 국문의 필요』)

한편 어문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아도 우리가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자인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어문민족주의 이론에 따르면 구역은 독립의 ‘基’요 인종(민족)은 독립의 ‘體’요 언어는 독립의 ‘性’인데, 세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性’(言語)이기 때문에 국가의 ‘盛衰’도 언어에 달려 있고 국가의 ‘存否’도 언어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민족이 자주독립국가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어가 되는 셈이다.

- (11) 天이 命한 性을 從하여 其域에 其種이 居하기 宜하며 其種이 其言을 言하기 適하여 天然의 社會로 國家를 成하여 獨立이 各定하니 其域은 獨立의 基요 其種은 獨立의 體요 其言은 獨立의 性이라 此性이 無하면 體가 有하여도 其體가 안이요 基가 有하여도 其基가 안이니 其國家의 盛衰도 言語의 盛衰에 在하고 國家의 存否도 言語의 存否에 在한지라 (주시경, 『國語文法』序)

이러한 어문민족주의적 어문관과 함께 이 시기의 사람들은 언어와 문자는 들이면서 하나라는 어문관을 가지고 있었다.

- (12) 各其邦의 言語가 殊異한 故로 文字가 亦從호야 不同호니 盖言語는 人の 思慮가 聲音으로 發음이오 文字는 人の 思慮가 形像으로 顯음이라 是以로 言語와 文字는 分호즉 二며 合호즉 一이니 (유길준, 『西遊見聞』序)

위에서 본 어문민족주의적 어문관과 言文이 일체라는 어문관이 결합하면 결국 문자도 자주독립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자

주독립하기 위해서는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얻어지는 것이다.

다섯째, 한글은 한국어의 어음에 따라 만든 문자이므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에는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발생론적 어문관에서 나온 논거라고 할 수 있다. 자연발생론적 어문관에서는 지구상의 육지가 천연으로 나뉘어 구역이 되고 구역에 따라 각 종 인종이 생기고 그 인종에 따라 각기 다른 말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으며, 그 각각 다른 말에 따라 그에 합당한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바,⁷⁾

- (13) 地球上에 陸地가 天然으로 난호여 五大洲가 되고 五大洲가 生 天然으로 난호여 여러 나라 境界가 되니 人種도 이를 따라 黃白黑棕赤으로 난호여 五大種이 되고 五大種이 生 난호여 그 居住하는 句域대로⁸⁾ 각” 많은지라 그 天然境界와 人種의 各異 흄을 따라 그 水土風氣의 粟賦대로 각” 그 人種이 처음으로 생길 때붙어自然發音되어 그音으로 物件을 일흡하고 意思를 표호어 각” 그 社會에 通用하는 말이 되고 生 그 말에 合當한 文字를 지어 쓰며
(주시경, 『대한국어문법』 발문)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자연히 한글은 우리말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문자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⁹⁾ 그렇다면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글이 가장 적

7) 이와 비슷한 인식은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에서도 나타나며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그런 까닭에 옛 사람이 소리에 따라 문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정을 통하였다.”(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다르면 소리의 기운도 또한 그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대개 (중국 이외의) 외국의 말은 소리는 있으나 문자는 없어서 중국의 문자를 벌어 쓰고 있는데, 이는 둑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끼움과 같아서 (소리와 문자가) 서로 맞지 않으니 어찌 능히 통달함에 막힘이 없겠는가?”(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盖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以通其用 是猶枘鑿之鉏鋸也 豈能達而無礙乎)

姜希孟이 엮은 「申叔舟行狀」에서도 나타난다.

“열국이 모두 國音의 문자를 가지고 국어를 적는데 오직 우리나라만은 그것(國音之文)이 없어서 (세종께서) 언문 28자를 지으셨다.”(列國皆有國音之文 以記國語獨我國無之 御製諺文字母二十八字)

8) 주시경은 ‘구역’에 대한 한자를 ‘句域’으로 쓰기도 하고 ‘區域’으로 쓰기도 하였다.

9) 주시경은 「국문연구」(1971, 『주시경전서』 521)에서 세종대왕이 “國音을 依하여 國

합한 문자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당연히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얻어지는 것이다.

여섯째,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실무상의 공부를 하려면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14) 만일 우리로 흐여금 그림 글즈¹⁰⁾를 공부하는 대신의 정치 속에 의회원 공부나 외무 공부나 지령 공부나 법률 공부나 수륙군 공부나 항해 공부나 위성 상경제학 공부나 장식 공부나 장수 공부나 농수 공부나 또 기외의 각식 수업상 공부들을 하면 엊지 십여년 동안에 이 여러 가지 공부 속에서 아모 사롭이라도 쓸문흔 즉업의 흔적지는 잘 졸업할 터이니 그 후에 각기 조그의 즉분을 착실히 직히 사름마다 부주가 되고 학문이 널너지면 그제야 바야흐로 우리 나라가 문명 부강호야질 터이라 (중략) 큰 성인의서 문드신 글즈¹¹⁾는 비호기가 쉽고 쓰기도 쉬으니 이 글즈들노 모든 일을 괴록하고 (주시경, 「국문론」)

한자, 한문을 사용하려면 그것을 배우는 데 십 년, 혹은 이삼십 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할 여가가 없는데,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 한글은 배우기가 쉬워서 한자, 한문을 배우느라 허비하던 세월을 실무 공부를 하는 데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직업상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려면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각종 직업상 필요한 공부도 해야만 학문이 넓어지고 나라가 문명 부강하여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개화기에 한글 사용을 일반화 또는 공식화하려 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다. 신기선 같은 사람은 한글(국문)을 쓰는 것은 사람을 변하게 하여 짐승을 만드는 것이라고까지 하였다.¹²⁾ 그렇

文을 新制”하였다”고 하였다.

10) 여기서 ‘그림 글즈’는 표의문자인 ‘漢字’를 가리킨다.

11) 여기서 ‘큰 성인의서 문드신 글즈’는 ‘한글’을 가리킨다.

12) “課髦士以國文反切 … 是化人爲獸”(申箕善, 「抵城外辭學部大臣疏」, 『申箕善全集』上)

『독립신문』 1896.6.4. 3면 「잡보」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다. 『歷代韓國文法大系』 3-06에 이 「잡보」의 내용이 재수록되어 있다.

기 때문에 한글 사용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글 사용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가 바로 당시의 사람들이 제시했던 논거들이었다.

이런 논거들이 제시됨으로써 한글 사용이 당연하다는 합의는 어느 정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한글을 사용하려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글로 쓰인 글은 읽기가 어렵다, 즉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다. 물론 이는 한문만 써 버릇하고 한글로 쓰인 글은 많이 읽어 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띠어쓰기를 하지 않고¹³⁾ 표기법이 제대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한글 사용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띠어쓰기를 실시하고 표기법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표기법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두 사람이 바로 지석영과 주시경이었다.

III. 지석영과 주시경의 표기법

지석영과 주시경은 다 같이 한글 사용이 공식화된 당시(1890년대 중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혼란된 표기법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서 표기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석영이나 주시경도 자신들의 초창기 글에서는 상당한 표기법의 혼란상을 보여 주었으나 각자 나름대로의 어문연구를 바탕으로 각자의 표기법을 정립하여 나아갔다. 그리하여 지석영은 대체로 『자전석요』(1909)에서 자신의 표기법을 정립하였고, 주시경은 『국어문법』(1910)에 이르러서 자신의 표기법을 정립하였다고 할 수

13)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건 다행이 아니라 첫지는 말마디을 째이지 아니하고 그저 줄줄 낙려 쓰는 까닭에 글즈가 우희 부터는지 아리 부터는지 몰나서 몇번 일거 본후에야 글즈가 어디 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쓴편지 혼장 을 보자면 한문으로 쓴것보다 더디 보고”(『독립신문』, 창간호 「논설」, 1896.4. 7.)

있다.

그러나 지석영의 표기법과 주시경의 표기법은 공통점도 없지는 않았지만 근본적인 원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본 장에서는 그 두 표기법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석영과 주시경은 우선 다 같이 ‘·’를 폐기하였다. 지석영은 「新訂國文」의 ‘첩음산정변(疊音刪定辨)’에서 ‘·’의 폐기를 선언한 셈이고 주시경은 「국문연구」에서 ‘·’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당시에 표기법 혼란의 상징적 존재였던 ‘·’가 당시의 국어를 표기하는 데에 필요 없는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지석영은 ‘·’의 음가가 ‘ㅏ’와 같다고 보고서 ‘·’를 폐기하고자 했고, 주시경은 ‘·’의 음가는 ‘ㅣ’—‘합음인데, 그러한 음이 당시의 국어에는 없다고 인식하고서 ‘·’를 폐기하였다.

지석영과 주시경은 고유어의 경우, 현실 발음대로 표기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擬古的 표기, 즉 歷史的 표기를 지양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형태소 내부의 구개음화를 반영한 표기와 치찰음 뒤에서의 이중모음의 單母音化를 반영한 표기이다.

지석영은 「新訂國文請議疏」에서 언문 14행 154자 중에서 疊音이 36자라 하였고, 『자전석요』「범례」에서는 이를 침음 36자 중에서 ‘댜뎌됴듀디, 타텨툐튜티, 샤서쇼슈, 쟈저죠쥬, 쟈처쵸츄’(22자)를 폐지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더뎌됴듀디, 타텨툐튜티’를 폐지한다는 것은 구개음화를 반영한 표기를 하겠다는 의미이며 ‘샤서쇼슈, 쟈저죠쥬, 쟈처쵸츄’를 폐지한다는 것은 치찰음 뒤에서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반영한 표기를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역사적 표기를 지양하고 현실 발음대로 표기하겠다는 표기법의 한 원칙을 제시한 셈인 것이다.

주시경도 ‘ㄷ,ㅌ’은 ‘ㅣ’나 ‘ㅑ,ㅓ,ㅕ,ㅛ’ 앞에서는 ‘ㅈ,ㅊ’으로 바뀌고 ‘ㅑ,ㅓ,ㅕ,ㅛ’는 ‘ㅅ,ㅈ,ㅊ’ 뒤에서 ‘ㅏ,ㅓ,ㅗ,ㅜ’로 단모음화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15) ㄷ이 ㅣ 나 ㅑ ㅓ ㅕ ㅛ의 初聲으로는 ㅈ로 變함 (주시경, 『國語文法』 22)

(16) ㅌ이 ㅣ ㅑ ㅓ ㅕ ㅛ의 初聲으로는 ㅊ로 變함 (주시경, 『國語文法』 22)

(17) ㅑ ㅓ ㅕ ㅛ는 ㄷ이나 ㅅ이나 ㅈ나 ㅊ나 ㅌ로 初聲됨을 讀할 時는 ㅏ ㅓ ㅗ

丁로 發흐니 此는 全國 一般의 習慣이라 間或 原音으로 發흐는 者가 有흐나
偶然 흄에 不過 흄으로 準則 흄 바가 못 되느니라 (주시경, 『국어문전음학』 42)

이러한 변화가 고유어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표기에 반영하였다. 즉 현실음대로 표기하였다. ‘저기(<더기>), 저리(<더리>), 좋아(<뚱->)’ 등의 예를 통해서 구개음화를 반영한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서로(<서로>), 서울(<서울>), 몬저(<몬져>), 적게(<적->)’ 등의 예들을 통해서 치찰음 뒤에서의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를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시경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 표기를 지양하고 현실 발음대로 표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음과 문자가 1:1 대응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어문관을 가졌던 주시경으로서는 이는 당연한 원칙이었을 것이다.

다음에 분철표기에 있어서도 일부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지석영도 7종성의 범위 내에서는 분철표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표기법에서는 두 사람의 표기법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간말음이 ‘ㄱ, ㄴ, ㄹ, ㅁ, ㅂ, ㅇ’일 때에만 두 사람의 표기법이 일치하였고(두 사람 모두 분철표기를 하였으므로), 어간말음이 ‘ㄷ, ㅅ’일 때에는 두 사람의 표기법이 일치하지 않았다. 어간말음이 ‘ㄷ, ㅅ’일 때의 두 사람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았다.

	지석영	주시경
믿-	밋고, 밋어, 밋으니	믿고, 믿어, 믿으니
웃-	웃고, 우서, 우스니	웃고, 웃어, 웃으니

그밖에 한자음 표기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표기를 했다는 점에서도 둘은 공통적이었다(란초, 리별). 한자음 표기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개화기 표기법의 한 경향이기도 하였다.

그러면 지석영의 표기법과 주시경의 표기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지석영의 표기법이 7종성 제한의 표기법인데 반해서 주시경의 표기법은 모든 자음을 종성으로 허용하는 표기법이라는 것이다. 지석영

의 표기법은 7종성 제한의 표기법이었기에 ‘높- + -고’를 ‘놉고’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고, ‘높- + -아서’를 ‘놉하서’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놉하서’와 같은 표기는 분철표기와 7종성법을 절충한 표기가 아닌가 한다. 즉 7종성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분철표기의 정신을 드러내려한 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석영의 표기법과는 달리 주시경의 표기법은 모든 자음을 종성으로 허용하는 표기법이었기에 ‘높- + -고’를 ‘높고’로 표기할 수 있었고, ‘높- + -아서’를 ‘높아서’로 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시경의 이러한 표기법은 ‘문법에 맞는 표기법’, ‘본음대로의 표기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것 이었다.

이상에서 간략히 논의한 바를 종합하자면 지석영의 표기법은 대체로 ‘7종성 국한의 음소적 분철표기’에 가까운 것이고, 주시경의 표기법은 대체로 ‘형태음소적 분철표기’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석영과 주시경의 이러한 표기법 원칙에서의 차이는 불규칙 활용의 표기에서도 차이를 드러내었다. 지석영은 대체로 불규칙 활용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데 반해서 주시경은 불규칙 활용의 표기에서조차도 본음을 밝혀 적는 표기를 시도했던 것이다.¹⁴⁾

	지석영	주시경
돕-	도으니, 도아	돕으니, 돋아
짓-	지으니, 지어(지여)	짓으니, 짓어
울-	우는, 우니	울는, 울니
흐르-	흘너	흐르어
이르-	이르러	이르어

14) 주시경도 소위 ‘여’불규칙과 ‘ㄷ’불규칙만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다만, ‘ㄷ’불규칙의 경우 받침을 ‘ㅅ’으로 표기하였다.

하: 하고, 하지, 하니, 하여, 하였다

듣: 듯고, 듯지, 들으니, 들어, 들었다

위에서는 주로 자음과 관련된 표기법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이제 모음과 관련된 표기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음과 관련된 표기법에 있어서도 지석영과 주시경은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즉 지석영은 모음 관련 음운현상도 표기에 반영하려 한 데 반하여 주시경은 이 경우에도 본음대로의 표기를 고수하려 하였다. 예컨대 ‘깃브- + -어’를 지석영은 ‘으’ 탈락이 적용된 ‘깃벼’로 표기한 반면 주시경은 ‘으’ 탈락을 반영하지 않은 ‘깃브어’로 표기하였다. 또한 ‘그라- + -어’와 같은 경우, 지석영은 활음화를 반영하여 ‘그려’로 표기한 반면, 주시경은 활음화를 반영하지 않은 ‘그리어’로 표기하였다. 그러니까 주시경은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도 본음대로의 표기를 하였던 것이다. 물론 활음화는 수의적 현상이었으므로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었다(‘다투어’ 같은 경우).

어간이 모음 ‘ㅣ, ㅔ, ㅐ, ㅚ, ㅟ’로 끝나는 용언이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의 표기법도 서로 달랐다. 지석영은 이런 경우 어미쪽에 활음 ‘j’가 첨가된 표기를 하였는데, 주시경은 역시 본음대로 표기하였다. 예컨대 ‘기- + -어’, ‘되- + -어’를 지석영은 ‘기여’, ‘되어’로 표기하고, 주시경은 ‘기어’, ‘되어’로 표기하였다. 이런 환경에서의 활음첨가는 수의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석영은 활음이 첨가된 쪽으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주시경은 활음이 첨가되지 않은 쪽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던 것이다.

그밖에 지석영의 표기법과 주시경의 표기법에서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것 중의 하나가 된소리 표기법이다. 지석영이나 주시경이나 된소리가 重音이라 는 데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 重音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지석영은 된소리를 ‘긱 디 채 씨 채’과 같이 각자병서로 표기하면 된소리라는 것이 다 각기 다른 부호로 표기되는데, ‘긱 디 채 씨 채’과 같이 된시옷을 사용하여 표기하면 된소리라는 것이 모든 경우에 된시옷 하나의 부호로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된시옷을 사용한 표기법이 더 단순한 표기법이라고 보았다. 된시옷의 발명은 諺文界의 하나의 혁명이라고까지 생각하였다(지석영 1929).

지석영은 된시옷이 한문에서 동일한 글자가 두 번 반복될 때 사용하는

표(‘⟨’와 같은 부호)에서 유래했다고 해석하였다. 이 표(⟨)는 ‘중복’ 혹은 ‘또’를 의미하는 부호인바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중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 표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 표가 모양이 약간 어색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된시옷처럼 ‘ㅅ’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초성병서 대신 붙이게 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석영은 된시옷을 하나의 부호라고 해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주시경은 된소리를 동일 자음이 중복된 혼합음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된소리 표기는 同字竝書로 하는 것이 音理에 맞다고 주장하였다. 한 때 된시옷이 ‘자 찍는법’에서 유래한 일종의 부호 같은 존재라는 지석영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된소리를 된시옷을 사용하여 표기하는 표기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주시경은 끝내는 된소리를 된시옷을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주시경은 소리와 문자가 1:1 대응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된소리 표기에 ‘ㅅ’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音理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시경은 문자란 소리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한 문자를 어떤 소리에 대응시키지 않고 부호처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주시경은 된소리는 同字竝書, 즉 각자병서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자음 표기에서도 지석영과 주시경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지석영은 한자음 표기도 현실음대로 표기했는데, 주시경은 한자음에 관한 한 현실음대로의 표기를 유보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지석영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전석요』에서 최초로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시경은 『국어문법』에서조차도 한자음 표기에서 역사적 표기를 보여 주었다. 주시경이 이렇게 한자음에 대해서 역사적 표기를 한 것은 아마도 한자음의 경우에는 『규장전운』이나 『전운옥편』과 같이 ‘御定’으로 정해 놓은 규범이 있는데 이를 갑자기 현실음으로 개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 또는 당시의 많은 식자총이 한자음을 현실음으로 개정한다면 한자의 ‘韻’이 문란케 될 것이므로 한자음

을 현실음으로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주시경이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¹⁵⁾

앞에서 논의한 지석영과 주시경의 표기법을 도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음영이 있는 부분은 표기법이 서로 같은 것이고 음영이 없는 부분은 표기법이 서로 다른 것이다.

〈문자체계〉

	지석영	주시경
· · ·	폐지	폐지
된소리 표기	ㅅ ㅆ ㄷ ㄸ ㄱ ㄲ ㅂ ㅃ ㅁ ㅃ	ㅌ ㄸ ㅂ ㅆ ㅍ ㅃ

〈통시적 음운변화〉

	지석영	주시경
구개음화	저리, 조타, 지다(落)	저리, 조타, 지다(落)
치찰음 뒤 단모음화	서울, 적다(少)	서울, 적다(少)
한자음 표기	현실음대로 표기	역사적 표기

〈공시적 음운현상〉

	지석영	주시경
한자어 두음법칙	녀승,란초,리치,리별	녀승,란초,리치,리별
모음탈락	깃브-+-어 → 깃벼 가-+-아서 → 가서	깃브-+-어 → 깃브어 가-+-아서 → 가아서
활음화	그리-+-어 → 그리 박구-+-어 → 박궈 다투-+-어 → 다투어	그리-+-어 → 그리어 박구-+-어 → 박구어 다투-+-어 → 다투어

15) 이 한자음 문제는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1912) 제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한자음은 역사적 표기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이는 한자음을 현실음으로 개정할 경우, 한자의 ‘韻’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석영	주시경
이간이 모음 ‘ㅣ, ㅔ, ㅐ, ㅚ, ㅟ’로 끝나는 경우 + ‘-어’	기- + -어 → 기여 개- + -어 → 개여 메- + -어 → 메여 되- + -어 → 되여 쉬- + -어 → 쉬여	기- + -어 → 기어 개- + -어 → 개어 메- + -어 → 메어 되- + -어 → 되어 쉬- + -어 → 쉬어

〈분절표기(1)〉

	지석영	주시경
분절표기(1)	먹으면, 먹어	먹으면, 먹어
	안으면, 안아	안으면, 안아
	알면, 알아	알면, 알아
	감으면, 감아	감으면, 감아
	잡으면, 잡아	잡으면, 잡아
	밝으면, 밝아	밝으면, 밝아
	삶으면, 삶아	삶으면, 삶아
	밟으면, 밟아	밟으면, 밟아
	몸이, 몸으로	몸이, 몸으로
	콩이, 콩으로	콩이, 콩으로
‘ㄷ’ 종성	밋고, 맛어, 맛으니	믿고, 믿어, 믿으니
‘ㅅ’ 종성	웃고, 우서, 우스니	웃고, 웃어, 웃으니

〈분절표기(2)〉

	지석영	주시경
분절표기(2)	차즈면, 차자	찾으면, 찾아
	좆흐면, 쥐하	좇으면, 쫓아
	맛흐면, 맛하	맡으면, 맡아
	갑흐면, 갑하	갚으면, 갚아
	노으면, 노아	놓으면, 놓아
	만으면, 만아	많으면, 많아
	훑흐면, 훌허	훑으면, 훌어
	읊흐면, 읊허	읊으면, 읊어
	울으면, 울아	옳으면, 옳아
	업스면, 업서	없으면, 없어

〈음소적 표기/형태음소적 표기〉

	지석영	주시경
음소적 표기 /형태음소적 표기	찻고, 찻지	찻고, 찾지
	좇고, 쫓지	좇고, 쫓지
	맞고, 맞지	맡고, 맡지
	갑고, 갑지	갚고, 갚지
	노코, 노치	놓고, 놓지
	만코, 만치	많고, 많지
	훑고, 훌지	훑고, 훌지
	읊고, 읊지	읊고, 읊지
	올코, 올치	옳고, 옳지
	업고, 업지	없고, 없지

〈불규칙활용 표기〉

	지석영	주시경
불규칙활용 표기	하고, 하면, 하여	하고, 하면, 하여
	듯고, 드르면, 드려	듯고, 들으면, 들어
	돕고, 도으면, 도아	돕고, 돋으면, 돋아
	짓고, 지으면, 지어	짓고, 짓으면, 짓어
	울고, 우니, 우는	울고, 울니, 울는
	흐르고, 흐르면, 흘너	흐르고, 흐르면, 흘르어
	이르고, 이르면, 이르러	이르고, 이르면, 이르어

그밖에 표기법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글과 함께 한자를 병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석영과 주시경은 입장이 달랐다. 지석영은 한문은 폐지하지만 한자는 한글과 함께 계속 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듯한데, 주시경은 한문은 물론이거니와 한자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지석영은 오늘날 우리말의 태반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언어에서 한문, 한자를 모두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였다(지석영 1929). 반면 주시경은 「국문론」에서 ‘문(門), 음식(飲食), 산(山), 강(江)’처럼 한자어이지만 조선말이 된 것은 그대로 쓰되 한자어 중 조선말이 되지 않은 것은 쓰지 말아야 옳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글전용을 전제로 한

글로 표기해도 그 뜻을 누구나 알 수 있는 한자어는 계속 사용하되 한글로 표기해 놓았을 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한자어는 쓰지 말고 고유어로 번역하여 써야 한다는 주장일 것이다. 결국 주시경은 한자까지도 폐지하고 한글만 전용할 것을 주장한 셈이다.

이상에서 지석영 표기법과 주시경 표기법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지석영과 주시경의 표기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석영의 표기법은 “현실 발음대로 적되 7종성 제한의 음소적 분절표기”를 원칙으로 하는 표기법이라 할 수 있겠고, 주시경의 표기법은 “현실 발음대로 적되 종성을 제한하지 않는 형태음소적 분절표기”를 원칙으로 하는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석영과 주시경의 표기법이 역사적인 표기를 지향하고 현실 발음대로 표기하려 한 점, 원칙적으로 분절표기를 지향한 점에서는 공통적인 면도 있지만 지석영은 7종성 제한의 음소적 표기를 지향했고 주시경은 종성 제한 없는 형태음소적 표기를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지석영과 주시경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표기법을 지향했을까?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지석영과 주시경의 어문관을 살펴 보면서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IV. 지석영과 주시경의 어문관

1. 지석영의 어문관

지석영의 어문관에 대하여는 송철의(2013: 21-24)에서 이미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 가져 오기로 한다.

지석영은 우선 문자를 “교육의 도구[校具] 중 기본이 되는 것[指南]”이라고 하였다(「新訂國文請議疏」). 이는 문자를 교육의 핵심되는 도구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문자는 이처럼 교육의 핵심적인 도구인데, 국문은 간결하고 쓰임

이 무궁무진하며 배우기가 쉬우므로 당연히 국민 교육을 위해서는 국문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이러한 장점을 가진 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이 문자(나아가서는 표기법)가 혼란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문자를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려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자를 이처럼 교육의 도구라고 본 것은 문자의 효용성을 인식한 것 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표기법과 관련하여서는 ‘便民利國’을 강조하였다(지석영 1929). ‘便民利國’이란 일반인들에게 쉽고 편리한 것(표기법)이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으로서, 이것도 지석영의 문자관, 나아가서는 어문관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지석영은 이론적으로 훌륭한 표기법보다는 일반인들에게 배우기 쉽고 편리한 표기법을 추구하였다. 그는 표기법이 쉽고 간결해야만 일반인들에게 국문을 빨리 보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래야만 민중을 빨리 계몽해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지석영은 또 한편으로 당시에 지향해야 할 표기법은 일반인들에게 너무 생소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야만 일반인들이 그 표기법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석영은 표기법 관련 논의에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표기법은 行用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¹⁶⁾ 지석영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에 깔고서 표기법을 정비하였기 때문에, 그의 표기법은 결국 전통적인 표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표기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지석영이 현재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지석영의 표기법은 보수적이고 주시경의 표기법은 진보적(혁신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지석영은 이와 반대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¹⁷⁾ 지석영은 종성 제한의 표기법(8종성법)이나 된소리를 된시옷으로 표기하는 표기법을 복잡한 쪽에서 간편한 쪽으로 진보(혹은 개량)되어 온 표기법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표

16) “一般人民의 習慣에난 生疎하야 行用하기 極難하리니” (지석영, 『국문연구안』, ‘二. 初聲의 ㄱ ㄷ ㅂ ㅁ ㅅ ㅎ 六字竝書의 書法一定’)

17) 이 부분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석영(1929) 참조.

기법은 그것을 더욱 간편하게 발전시킨 진보적인 표기법이라고 여겼다. 자신의 표기법에 비해 주시경식의 표기법은 그 진화한 표기법을 다시 과거의 복잡한 표기법으로 되돌리려는 시대 역행적인 표기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지석영이 주시경식의 표기법을 이렇게 비판하게 된 뿐미는 주시경이 제공하였다. 주시경은 자신의 표기법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옛 문헌 속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훈민정음』에서 ‘終聲復用初聲’이라는 구절을 찾아내었고 『용비어천가』에서 ‘ㅈ, ㅊ, ㅍ’ 등이 종성으로 쓰인 예를 찾아내었다. 주시경은 ‘終聲復用初聲’을 모든 초성을 종성으로도 사용하라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였고 『용비어천가』에서 ‘ㅈ, ㅊ, ㅍ’ 등이 종성으로 쓰인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시경은 모든 초성을 종성으로도 쓰라는 것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의 뜻이었다고 믿었던 듯하다. 사실이 규정은 制字上의 규정이지 表記法上의 규정은 아니었는데(이기문 1970: 33), 주시경을 비롯한 개화기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규정이 표기법 규정이라고 이해하였다.

지석영도 마찬가지였다. 지석영도 위의 규정을 표기법 규정으로 받아들이고서는 한글 창제 초기의 표기법은 모든 초성을 종성으로 사용하는 복잡한 표기법이었다고 이해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지석영은 주시경의 표기법을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시대에 역행하는 표기법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지석영은 옛 사람들이 발명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면, 우리 생활 속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개량이나 진보나 혁명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시경식의 표기법은 개량이나 진보나 혁명과는 거리가 먼 표기법이요, 과거로 회귀하려는 보수적인 표기법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상 간단히 논의한 바를 통해서 본다면 지석영은 문자를 교육의 도구로 보는 어문관, 쉽고 간편한 것을 추구하는 간편주의(실용주의) 어문관,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위민주의¹⁸⁾ 어문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18) 김성진(1973: 284)에서 지석영을 ‘한글 개량운동을 전개시킨 위민주의인(爲民主主義人)’이라고 한 바 있다.

2. 주시경의 어문관

주시경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어문민족주의적인 어문관, 자연발생론적 어문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독립을 상징하는 ‘國性’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육지가 천연으로 나뉘어 구역을 이루고 그 구역에 따라 인종이 생기고 그 인종에 따라 자연히 언어가 생기며 그 각각의 언어에 따라 그에 합당한 문자가 만들어진다고 보고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주시경은 또 말의 소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音은 天地에 自在흔 者’(『국어문전음학』 5)라고 인식하였으며, 그 천지에 자재한 소리(음)를 바탕으로 문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言文一致’란 ‘言’에 ‘文’을 일치시키는 것이지 ‘文’에 ‘言’을 일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진정한 문자란 음을 충실히 반영한 문자, 즉 소리(음)와 문자가 정확히 1:1 대응관계를 가지는 문자라고 하였다.

(18) 소리라 흐는 것은 턴디에 주연히 잇는 것이라 이런으로 턴디에 주연히 있는 소리를 뉘 능히 덜흘 수 업고 턴디에 주연히 업는 소리를 뉘 능히 더흐지도 못흘지라 이럼으로 정 학역지도 훈민정음 서에 턴디에 주연흔 소리가 잇는 즉 반듯이 턴디에 주연흔 글이 잇으리라 흐엇으니 글은 턴디에 주연히 있는

소리 대로 될것이요 한겹 한획이라도 잇는 것을 덜흘거나 업는 것을 더흘 수 업스리라 흠이 명박하니라 (주시경, 「국문」 1-5: 23)

(19) 音을 表하는 文字라도 文字가 音을 盡흐지 못흘지언정 音이 文字를 盡흐지 못흐은 無흐고 文字가 音에 違흘지언정 音이 文字에 違흐은 無흐고 文字가 音에 不足흘지언정 音은 文字에 不足흐이 無흐니 文字가 音에 外흔즉 文字가 안이라 (『국어문전음학』 6-7)

주시경은 당시의 표기법의 혼란은 사람들이 국어의 문법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국문론」에서 그는 ‘이것이’를 ‘이것시’라고

잘못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시’라고 잘못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문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영문법 등을 통해서 습득한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하나의 곡용형은 몸(어간)과 토(조사)로 분석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몸과 토의 경계를 밝혀 표기하는 것, 즉 몸과 토를 구별하여 표기하는 것만이¹⁹⁾ 문법에 맞는 표기법이라고 믿었던 듯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문법에 맞는 표기법을 정립하는 것이 표기법을 통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몸과 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용언으로 확대되어 용언의 경우에도 어간과 어미의 경계를 밝혀 적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를 것으로 여겨진다.²⁰⁾

그런데 그와 같이 문법에 맞는 표기(분절표기)를 철저하게 하려다 보면 자연히 받침의 문제가 제기된다. 종래의 8종성(또는 7종성)만으로는 분절표기를 철저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타도(任)’, ‘조차도(從)’를 분절표기하면 ‘맡아도’, ‘좇아도’가 되는 바, 이와 같이 분절표기를 하려면 ‘ㅌ, ㅊ’ 등을 종성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시경은 과감하게 전통적인 8종성법을 폐기하고 모든 초성을 종성으로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¹⁾ 그리고 ‘높- + -아’를 ‘노파’나 ‘놉하’가 아니라 ‘높아’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면 더 나아가서는 ‘높- + -고’ 같은 경우도 ‘놉고’가 아니라 ‘높고’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높- + -고’를 ‘놉고’가 아니라 ‘높고’로 표기하는 문제는 경계를 찾아 적는다는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그는 이러한 표기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음운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本音’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는 ‘놉고’와 같은 표기는 ‘임시의 음’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고 ‘높고’와 같은 표기는 본음대로 표기하는 것인데, 본

19) 「국문론」에서는 이를 “말의 경계들을 올케 차자 써야 ㅎ겠고”라고 표현하였다.

20) 이병근(1985: 66)에서는 이를 주시경의 형태론적 인식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21) 주시경은 우리말을 “캐어보고”, “궁구하여 본” 결과 종성이 ‘ㄷ, ㅌ, ㅍ, ㅈ, ㅊ, ㅎ, ㅋ’인 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종성을 가진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종성(받침)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말과 글이 상좌되어 표기법이 혼잡하게 되었으며 문리를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문법에 맞는 표기라고 주장하였다. 표기법을 정립하는 데에 ‘본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그의 표기법을 흔히 ‘본음주의 표기법’이라 일컬게 되었다. 본음주의 표기법이란 어간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운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본음을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 있는 ‘형태음소적 분철표기’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시경의 표기법은 지석영의 간편주의 표기법과는 상당히 다른 이론적인 표기법이 되었던 것이다.

V. 결론

개화기에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는 혼란된 한글 표기법을 통일하는 일이었다. 지석영과 주시경은 다 같이 이를 위하여 진력하였고 각자 나름대로의 표기법을 정립하였다. 지석영의 표기법이 “현실 발음대로 적되 7종성 제한의 음소적 분철표기”를 지향한 표기법으로서 간편하고 현실적이며 전통적인 것이었다면, 주시경의 표기법은 “현실 발음대로 적되 종성을 제한하지 않는 형태음소적 분철표기”를 지향한 표기법으로서 이론적이고 이상적이며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표기법은 공통점도 없지 않지만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우선 두 표기법의 공통점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현실음대로의 표기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음운변화로 인한 표기법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현실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를 폐기한 것이라든지, 형태소 내부의 구개음화, 치찰음 뒤에서의 單母音化를 반영한 표기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두 표기법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분철표기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물론 지석영의 경우 7종성의 범위 내에서만 분철표기를 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지석영도 분철표기를 지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분철표기가 문법을 반영하는 표기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면 두 표기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역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

다. 하나는 지석영의 표기법이 음소적 표기를 지향했다면 주시경의 표기법은 형태음소적 표기를 지향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석영의 표기법이 7종성 제한의 분철표기에 머물렀다면 주시경의 표기법은 종성을 제한하지 않는 전면적인 분철표기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두 표기법이 이렇게 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석영은 표기법은 간편하고 편리해야 하며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 생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글을 빨리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기법이 배우기가 쉬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지석영은 당시에 민족의 목소리로 전개되고 있던 생활 개신 운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활 습관이 신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신해 보자는 것인데, 그 운동에서 호소하는 바는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하자, 간편하게 하자, 경제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언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지석영 1929). 바꾸어 말하자면 한글 표기법도 편리하고 간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시의 시대적 추세요 시대 정신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표기법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더욱이 그것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학설에 기초하였다 하더라도 시대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석영은 이러한 정신, 혹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행해지고 있던 표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표기법을 정립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훈몽자회』의 ‘諺文字母’의 규정을 약간 손질하여 표기법의 준거로 삼으면서(종성 제한 규정), 그 당시 일반화되어 가고 있던 7종성 제한의 분철표기를 받아들이고, 어간말 유기음을 재음소화하여 표기하는 표기법이었는바, 당시에 실현되고 있던 표기법을 대부분 수용하여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쉬우면서도 생소하지 않은, 실용적인 표기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약간의 비약이긴 하지만 지석영의 행적과 어문에 관한 주장들을 살펴 보다 보면 ‘實事求是, 利用厚生’과 같은 실학정신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지석영의 간편주의 표기법, 실용주의 표기법은 실학정신, 혹은 실학사상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석영의 수학과정이나 姜瑋

와의 師弟관계, 유길준 등과의 교유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주시경은 어문민족주의자요, 애국계몽사상가였다. 그리고 신학문을 접하면서 문법의 개념을 터득하고 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그러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의 문법을 연구하면서 표기법은 문법에 근거하여 정립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 듯하다. 문법이라는 분명한 준거를 가진 표기법을 정립하는 것만이 표기법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그는 당장의 실용성은 떨어지더라도 문법에 맞는 표기법, 이론적으로 합당한 표기법을 수립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어간의 본음을 밝혀 적으면서 분철표기를 하는 혁신적인 표기법(본음주의 표기법)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이 표기법은 종래의 8종성법(혹은 7종성법)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소하고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新히 怪癖 흔 說을 刈起해야 人の 耳目만 眇亂케”²²⁾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주시경은 그러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표기법이 옳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문자 문제와 관련하여 주시경은 어문민족주의자였기에 한문과 한자는 모두 폐지하고 한글만 전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어문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 문자인 한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석영은 철저한 어문민족주의자는 아니었기에 한자 사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자 사용의 오랜 전통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하자면, 지석영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표기법을 지향하였고, 주시경은 표기법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타당한 표기법,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표기법을 지향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22) 『대한매일신보』 「논설」 1908. 3. 1.

참고문헌

- 강명관(1985), 漢文廢止論과 愛國啓蒙期의 國·漢文論爭, 『한국한문학연구』 8, 한국한문학연구회, 195~252.
- 고영근(1979), 周時經의 文法理論, 『韓國學報』 5권 4호(통권 17호), 一志社, 126~144.
- 고영진(2008), 한국어의 근대화 연구 서설: ‘언문’에서 ‘국문’으로, 『言語文化』 11-1, 同志社大 學言語文化學會, 27~53.
- 구선희(1987), 福澤諭吉과 1880年代 韓國開化運動, 『사총』 32, 고려대학교, 97~141.
- 김민수(1987), 『국어학사의 기본이해』, 집문당.
- 김민수 편(1992), 『周時經全集』(1~6권), 塔出版社.
- 김성진(1973), 池錫永, 『한국인물대계 (6)－근대의 인물 1』, 박우사, 275~284.
- 김영진(1999), 池錫永의 國文研究와 普及, 『어문논총』 14, 동서어문학회, 51~69.
- 송철의(2004),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 운동과 어문 정책, 『韓國文化』 3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36 [이병근 외(2005)에 재수록].
- 송철의(2008), 주시경의 ‘本音’에 대하여, 『李崇寧, 國語學의 開拓者』(心岳 李崇寧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논집), 태학사, 967~993.
-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송철의(2013), 지석영과 개화기 어문 정리,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학자』(송철의 · 김명호 · 양승국 외저), 태학사, 15~83.
- 신용하(1985), 池錫永全集 解題, 『池錫永全集』 1·2·3, 한국학문현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 신용하(2004), 池錫永의 開化思想과 開化活動, 『한국학보』 30권 2호(통권 115호), 89~112.
- 신유식(1988), 近代國語書記法研究,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유식(1993), 池錫永의 國文研究, 『語文論叢』 8·9, 청주대학교, 149~184.
- 신유식(1999), 지석영과 주시경의 비교연구: 서기법이론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14, 청주대학교 동서어문학회, 71~95.
- 유창균(1993), 『훈민정음역주』, 형설출판사.
- 유동준(1997), 『俞吉濬傳』(重版: 초판 1987), 일조각.

- 이관일(1994), 松村 池錫永과 國文研究, 『松村 池錫永』(대한의사학회 편), 아카데미아, 91~107.
- 이광린(1993), 송촌 지석영, 『개화기의 인물』,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기문(1970), 『開化期의 國文研究』, 일조각.
- 이기문(1976), 周時經의 學問에 대한 새로운 理解, 『韓國學報』 2권 4호(통권 5호), 一志社, 39~58.
- 이기문(1977), 「19世紀末의 國文論에 대하여」, 『朴晟義博士回甲紀念論叢』, 169~178.
- 이기문(1981), 한현생의 言語 및 文字 理論, 『語學研究』 17-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55~165.
- 이병근(1978), 愛國啓蒙主義時代의 國語觀, 『韓國學報』 4권 3호(통권12호), 一志社, 176~192.
- 이병근(1979), 周時經의 言語理論과 '는씨', 『國語學』 8, 국어학회, 29~49.
- 이병근(1985), 周時經, 『국어연구의 발자취(I)』, 서울대학교 출판부, 1~78.
- 이병근(1986), 「開化期의 語文政策과 表記法 問題」, 『국어생활』 4호, 국어연구소, 24~45.
- 이병근(1998), 「統監府 時期의 語彙整理와 그 展開: 池錫永의 『言文』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24.
- 이병근(2000), 愈吉濬의 語文使用과 『西遊見聞』, 『진단학보』 89, 진단학회, 309~326.
- 이병근 외(2005),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완옹(1928), 「朝鮮のゼンナ 種痘先生」(一)~(九), 『朝鮮思想通信』 1928년 11월 19~28일(9회 연재).
- 이완옹(1929), 簡便主義를 主張함, 『新民』 52호(1929년 8월호), 69~71.
- 이익섭(1992), 『國語表記法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용화(1998), 유길준의 정치사상연구: 전통에서 근대로의 복합이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승철(2003-), 周時經의 音學: 刪除本 『말』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11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9~49.
- 정승철(2003-), 주시경과 언문일치, 『한국학연구』 12, 인하대학교, 33~49.
- 정승철(2005), 근대국어학과 주시경, 『한국 근대초기의 언어와 문학』(이병근 외 저), 서울대학교출판부, 79~138.

- 정승철(2009), 어문민족주의와 표준어의 정립, 『인문논총』 23, 경남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159~180.
- 지석영(1929), 「理論としては結構 實行されては困る, 總督府の 朝鮮文綴字法改
正案を見て(五, 六, 七)」, 『朝鮮思想通信』 1929년 7월 8, 9, 10일(3회 연
재).
- 최낙복(1991), 『주시경 문법의 연구』, 문성출판사.
- 한택동(1998), 주시경의 음운이론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